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NOVEMBER 2024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51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2024년 10월 12일 Split Rock Golf course에서 SNUAA New York 지역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10월 14일이 Columbus Day 이어서 연휴 시작하는 토요일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 동문들이 한국방문 등 일정이 겹쳐져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인 21명이 참가하였다. 날씨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 골프 치기에 아주 좋았다. 예약 시 이야기한 인원보다 많이 부족하여 골프대회 자체적으로는 적자를 보였지만 실제로 골프 대회에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장학기금에 적극적으로 찬조하신 동문들 덕분에 풍성한 Fund Raising이 되었다. 구순을 넘기신 김영덕 동문이 노익장을 보여주시며 후배들을 격려하였다.

얼마 전에 “흔적을 남기고”라는 주제로 회화 미술작품전을 하였던 김광현 동문이 골프대회를 위하여 그림 1점을 찬조하여 상품이 더

욱 풍성하였다. 그 그림을 상품으로 받은 영예의 동문은 참석을 하지 못할 뻔하다가 어렵게 참석한 박기환 동문에게 돌아갔다.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Medalist	김문언 (84타)
Champion	박기환 (87타 Gallaway 72 타)
1St Winner	계동휘 (93타 Gallaway 73타)
2nd Winner	우규환 (93타 Gallaway 73타)
3rd Winner	곽선섭 (94타 Gallaway 73타)
Longest	조승자
Close Pin	박기환



SNU NY 송년회

2024년 뉴욕동창회 송년회가 12월 7일 5시 NJ Fort Lee에 위치한 Double Tree Hotel Grand Ballroom에서 열리며 장학금 수여식이 함께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30여명의 동문합창단이 출연하며 음대 미니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기념이 될 수 있도록 Photo Booth를 준비하였으며, 동문 화백들의 작품을 silent auction도 준비합니다. 이번 행사에 부부 함께 참석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위에 있는 젊은 동문들에게 알려져 함께하는 풍성한 송년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12월 7일 (토) 오후 5시
회비: 1인당 \$120

11월 하이킹 안내

11월 하이킹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회원들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집결장소가 불편한 분은 Trailhead로 직접 오셔도 되며, 참가하실 회원은 연락주시시오.

- *일시: 11월 14일(목) 9시
- *집결장소: PIP exit 4-5 중간 Commuter Parking Lot (GPS 좌표, 41.0282, -73.9388)
- *Trailhead: 9시 30분, (GPS 좌표, 41.2926, -74.0256)
 Anthony Wayne Recreation Area South Parking Lot
- *준비물: 등산화, 하이킹 폴, 음료수, 간식 (뒤풀이 예정)
 Pizza Mia Pasta, 14 Thiells Mt Ivy Rd, Pomona, NY (41.1893, -74.0372)

문의/ 참가: 홍종만, 646-342-2667



뉴욕지역 동창회 골프대회 (1면에서 계속)



(임상자와 함께)김정필 김문언 박기환 김광현 김병순
 박기환 동문은 상품으로 김광현 동문이 협찬한 유화 1점을 받았다.



Split Rock Golf Course 1번 홀에서 tee shot을 기다리는 동문들

Minnewaska Lake Hiking

지난 10월 17일 11명의 골든클럽 회원이 방문한 Minnewaska Lake 는 청록색 맑은 호수와 기암절벽들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뉴욕 주립공원이다. 일년내내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특히 단풍계절에는 Mohonk Lake와 더불어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이다. 특히 Gertrude's Nose는 거대한 빙하의 이동과 침식으로 형성된 독특한 암석형상으로 더욱 유명하다,



오르간 연주회에 참석한 정해민, 홍종만, 강혜미, 홍예경, 김병순 회원

12월 7일 송년회를 위하여 모인 동문회 합창단 첫번째 연습모습

회원 탐방 이승준 (공대 64)

우리 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고 보름 쯤 지난 9월 초에 지금은 북한땅인 경기도 개풍군 임한면에서 조선 태종대왕의 21대 후손으로, 또 여러대에 걸친 종갓집의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유년기를 보냈다고 부모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다. 봄에 집 앞의 나즈막한 산에 올라 할머니께서 꺾어주신 싱아의 새 순을 입속에 물고 그 상큼한 신맛을 음미(?)하다가 싫증이 나면 언덕에 올라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위에 바람이 일어 만든 잔물결들과 그 물결들 위에서 영롱하고 눈부시게 반사되는 햇빛을 시간 가는줄 모르고 바라 보던 기억, 머슴할아범의 등에 얹혀 우리 인삼밭에 가서 한나절을 보낼때 일꾼들이 삼을 캐며 구성지게 부르던 노래소리를 들던 기억, 때로는 엄하셨으나 항상 따듯하시고 자상하신 아버님에게 천자문을 배우던 기억 등등이 아직도 내 유년기의 즐거웠던 추억의 단상들로 남아있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1.4후퇴 당시 다행히 우리 전 가족은 머슴할아범 식구들과 같이 무사히 남하하여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의 한 친척집에 잠시 머물며 후시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 갈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함을 아신 아버님은 머슴가족을 강화도의 지인에게 보내 농사일을 돌보게하고 우리는 서울 아현동으로 이주하여 나는 고촌국민학교에서 아현국민학교로 전학과 졸업하고 경북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공과대학에 64학번으로 입학하여 기계공학과에서 내가 존경하는 고 이택식 교수님 지도하에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육군사관학교 교수증원에 필요한 특수간보생으로 선발되어 16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중위로 임관하여 육사 교수부에서 조교수로 생도들에게 기계공학을 3년간 가르치며 대위로 1975년 8월에 군복무를 마쳤다. 제대 1년여 전 부터 교수부에서 같이 근무하던 특수간보생 동기들이 발빠르게 유학준비하는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나도 뒤늦게 준비하던중 UCLA에서 흔쾌히 Research Assistance 장학금을 준다가 제대한 후 바로 UCLA로 가서 Heat & Mass Transfer (열과 질량전달) 전공, Chemical Engineering 과 Computer Science 부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UCLA의 Boelter Hall에서 내 지도교수님 (Prof. D. K. Edwards - 당시 Radiation Heat Transfer, 특히 Gas Radiation Heat Transfer 분야의 일인자)의 명강의도 듣고 내가 좋아했던 연구과제도 수행하는 한편 다른 기라성같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필요할때면 언제나 그분들을 만나 질문과 토론을 하고 조언을 구할수 있었으니 지금도 나는 내 생애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시절이 비록 가난했지만 UCLA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박사학위를 받을 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돌이켜 보면 나는 학창시절 훌륭한 은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로 부터 학문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관해 많것을 배울 수 있는 행운을 누리며 살아온것 같다. 한가지 아직도 죄스러운 것은 서울공대의 고 이택식 교수님이나, 나를 꼭 Mr. Rhee 라고 불러주시다 학위를 받는 순간 아내와 같이 있던 그자리에서 Dr. Rhee 라고



불러 주셨던 UCLA의 고 Edwards 교수님이 돌아가셨을때 모두 늦게 연락을 받아 두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못한것이다.

학위논문이 거의 완성되었던 1979년 말경 졸업 후 귀국하여 일 할 직장을 찾기 시작했는데 아버님께서 박대통령 시해후 정국이 어수선 하니 한 일이년 더 미국에 체류했다 귀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터이니 한번 검토해보라고 조언을 해 주셨다. 하여 Post Doc도 고려해보았으나 몇년전 부터 UCLA에 와서 Edwards 교수님을 만난 후에 나를 점심식사에 초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눈뒤 입사원서를 주며 학위 취득후에 꼭 Bound Brook, New Jersey에 있는 Union Carbide Corporation (UCC) Polyolefins Division R&D에 입사하여 같이 일해보자던 Associate Director 생각이 나서 전화로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보내겠다고 했더니 무척 반기며 원서는 나중에 작성해도 되니 당장 와서 면접을 하라고 권하셨다. 얼떨결에 동부에 처음 와서, 그것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석유화학 회사의 박사학위 소지자들과 면접을 하게 되니 무슨 질문을 받을까 무척 긴장 되었으나 모든 면접의 내용은 UCC는 굴지의 global 회사고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잘 알고 당신을 좋아하며 당신과 같이 일하고 싶으니 빨리 오라는 것이었고, HR Director도 영주권등에 필요한 모든 법적인 문제들은 걱정 말고 학위 받는 즉시 입사하여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해주기 바란단다. 박사학위 논문을 셋으로 쪼개서 세계의 학술지에 원고를 보내고 1980년 8월 졸업식에 참석한 후 가족과 같이 New Jersey로 이사와 UCC 연구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입사 당시 UCC는 UNIPOL Process라 불리우는 Polyethylene (PE) plastics 제조 공정과 생산품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아 technology

licensing 사업을 키워나가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기술면에서는 타 회사들의 추종을 불허 할 때였다. 기술력있는 회사의 좋은 연구소에서 훌륭한 동료들과 같이 일하며 매일 새로운 지식을 배울수있던 나는 그 과정이나 결과에 무척 만족했고 그결과 나도 많은 특허를 받았고 그 중 여러 특허들은 상용화 되었다. UNIPOL Process의 중심 기술은 gas fluidized-bed reactor (가스 유동층 반응기)를 낮은 압력과 낮은 온도에서 운전하여 고분자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 인데 내가 20년 넘게 근무했던 당시 PE 생산 기술 개발을 완성한 후 Polypropylene (PP)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시켰고 마지막으로 Ethylene-Propylene-Diene Monomer rubber (EPDM 인조고무)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단계까지 갔었다. 내가 연구원 이였을때 기술적인 면에서 이룬 성과 중의 하나는 EPDM 인조고무를 UNIPOL 공정에서 생산할수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 올려 내 특허가 1999 Thomas Alva Edison Patent Awards Ceremony에서 R&D Council of New Jersey로 부터 Special Recognition Award 를 받아 회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불행하게도 Union Carbide는 1984년 12월 인도의 Bhopal에서 발생한 큰 사고 이후 생존을 위해 Polyolefins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을 처분하게 되었으나 결국 2001년에 Dow Chemical에 흡수되어 나는 2003 말까지 Dow 에서 일 한 후, 2004년에 대전에 소재한 LG Chem 연구원의 Polyolefins 연구소에서 VP/R&D Director로 일년간 일하게 된다. 돌이켜 보면, 그 일년동안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하나도 뒤지지 않을 회사의 연구원에서 내 생애에서 가장 바쁘게 가장 많은 일을 했고 또한 술을 가장 많이 마셨던 한해였다고 생각된다. 지금도 소박하고 훌륭한 인품을 지니셨던 구회장님과 구부회장님을 가끔 생각하게된다.

미국으로 돌아온 나는 2005년 초부터 head hunter 들에 끌려(?) Sunoco Chemical과 Formosa Plastics를 거친 뒤 2014년 10월 부터 Houston에 소재한 SABIC US Headquarter로 옮겨 Chief Scientist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SABIC은 Saudi Arabia의 Riyadh에 본사를 두고 미국, 유럽, 아시아에 local headquarter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global 석유화학회사로 한 회사 단위로 볼때 UNIPOL Process PE & PP 공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증진시킨 경험이 많은 인력이 필요할때 head hunter를 통해 나를 찾은거 같다. 지난 10 여년간 Houston에서 유럽과 중동을 오가며 젊은 과학자들을 모아 팀을 꾸려 주로 기술개발 및 생산 성향상 project 들을 수행해왔고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technical training과 mentoring을 통해 기술/지식 이전 등등의 일을 하며 바쁜 생활을 하다 지금은 뉴저지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내가 나이에 비해 좀 젊어 보인다는 말을 가끔 듣는데 그것은 아직도 일하며, 젊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일을 하다 서로 부디끼며 (선의로) 머리씨름도 하고 또 항상 새로운것을 배우고 최선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아내와의 첫만남은 1970년 말 내 고교 동창이 자기의 사촌 여동생과 친구들이 등산을 하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주말에 서울 근교에

등산할때 같이 가면 안전하고 좋겠다고 물어와 일단 누구들인지 한번 만나보자고 하여 주선된 일종의 group meeting에서였다. 학교에서 연주가 늦게 끝나 지각했다며 고개를 숙이며 나타난 동창 사촌동생의 첫인상은 날씬하고 큰 키였는데 자기 몸집보다 큰것처럼 보이는 첼로를 가느다란 팔과 손으로 움켜잡고 다방을 들어서는 모습이 자칫 넘어질거 같아 불안해 보였다. 당시 그녀는 서울 음대 기악과 2학년 재학중 (69학번) 나는 대학원 2학년으로 무예건축설계 사무소 설비팀에서 서울대학병원 설비 설계를 도와주며 한편으로는 바쁘게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긴 이야기를 줄이자면, 우리는 처음에는 구름으로 산행을 했고 구름이 형성되지 않을때면 돌이서 등산을 하며 가까와졌는데 그 큰 첼로를 들고 다니는것이 항상 불안하고 안스러워 광화문에서 만났을때면 언제나 그것을 내가 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청운동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나 이차 때문인지 그녀의 나에대한 호칭은 한동안 “이보세요 아저씨” 였고 나 또한 그녀를 “어이 꼬마야”라고 불렀다. 아내에게 얼마전 요즘 젊은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쓰는 호칭으로 날 한번 불러보라고 했다가 눈흘김만 받았다.

그녀가 학교를 졸업한 1973년 봄 우리는 결혼했고 거의 이년후에 큰아들이 태어나 양가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렸으나 태어난지 일년도 채 안되어 우리 세가족이 LA로 왔으니 부모님들이 많이 섭섭해 하셨다. 큰아들은 결혼하여 Manhattan에 살며 큰 금융회사의 Sr. VP로 일하고 있고, 엄매이기 싫어하는 둘째아들은 미혼으로 우리집 가까이 살며 사업을 하고, 딸도 아직 미혼으로 San Diego에 거주하며 Deputy Attorney General of California로 일하고 있다.

■ 인터뷰 및 정리 김병순(사회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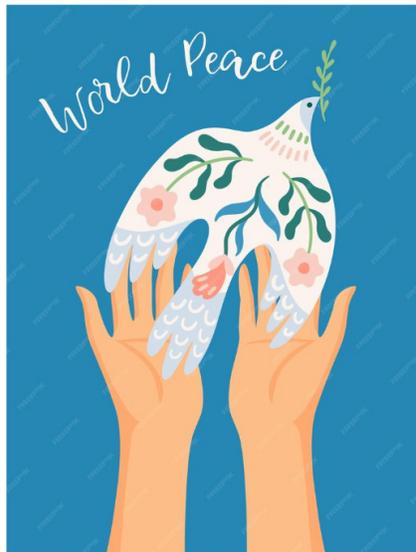
10월 9일 강혜미 오르간 콘서트에서 함께 한 이승준 회원 부부

재난(Disaster)에 대하여

■ 오순문 (사대68)

재난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2019년의 코로나 창궐은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었다. 만약 바이러스의 독성이 더 강했거나 백신의 개발이 없었다면, 수억명이 희생 되었을테고 사회활동도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금년 8월 일본 기상청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진도 7.1의 지진을 분석한 후,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가능성을 경보하였다. 그후 일본열도는 급속하게 패닉으로 빠져들었다. 일본 남해 일대의 대지진과 40m해일의 경보, 4,500만 인구 밀집 지역인 도쿄 수도권의 직하지진 가능성, 초거대 태풍 산산의 발생, 후지산 분화로 이어지는 3중4중 경보는 오랫동안 회자되오던 “일본 열도 침몰설”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거기에 유명 예언자들까지 한마디씩 거들면서 일본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소련연방이 1991년 15개 공화국으로 해체된 뒤, 러시아는 다시 주위 공화국들을 하나씩 공략하기 시작한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2년여 시간을 끌면서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핵무기 사용이나 유럽, 동북 아시아, 중동으로의 확전을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세상은 안전하다고만 생각해 왔었는데 팬데믹, 일본 열도의 패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 보면서 사람들은 큰 재난들이 언제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주 거론되는 큰 재난들을 간단히나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치사율이 높아진 호흡기 질환 또는 항생제에 면역되어 치료가 불가능해진 질병들의 출현, 그리고 후지산, 백두산, 울릉도, 옐로스톤 등의 화산 분화 가능성은 자주 거론되는 재난들이다



지구온난화(화석연료를 사용한 후150년 동안 1.5도 상승)는 빙하기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정확한 메카니즘과 통제 방법을 모른다는 점이다. 지구는 빙하기(10만년 주기)와 간빙기(2.3만년 평균주기)가 교대로 18회 정도 반복해왔다. 지금은 간빙기가 1.2만년 지난 시점이다. 수십만년 동안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체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되어 왔는데, 매번 지구가 때뚱해졌다가는 갑자기 빙하시대가 찾아 오곤했다. 지구의 자전과 해류의 순환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을 골고루 분산시켜준다. 더워진 태평양 바닷물이 북극해의 여름을 녹이면 태평양의 수온과 북극해의 수온차가 작아지는데다, 녹은 빙하는 담수가 되어 태평양의 해수보다 비중도 낮아져서 냉운 해수의 순환이 늦어진다. 지금까지 차거운 북극해 해수가 태평양 해수 밑으로 파고들면서 해류의 순환이 상하로 이뤄져 왔었는데, 해류순환이 멈추면 열교환이 안되고 북극해가 갑자기 얼기 시작한다. 간단하지만 지구가 더워졌다가 갑자기 빙하시대가 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금은 태평양과 대서양, 멕시코만의 해류 순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

NASA는 9월9일 지구로 접근하는(100만 km) 축구장 크기(직경

290m)의 소행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리고10년 전에는 2029년 4월13일에 제법 큰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에 32,000km까지 접근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지구 멸망의 원인으로 항상 1순위로 거론되는게 소행성의 지구 충돌이다. 6600만년 전에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소행성이 떨어져 엄청난 폭발과 먼지로 인한 기후변화로 공룡을 비롯한 거의 모든 육상 생물들이 멸종했었다.

지구는 철광석을 비롯한 자성물질로 되어 있는데, 자성이 큰 물질이 녹은 상태로 빠른속도로 회전운동을 하면 북쪽(N)과 남쪽(S)으로 극이 나뉘지고 자기장이 형성된다. 지구 대기권, 성층권, 지구표면에 NS자기장(Magnetic Field)이 형성되면서 태양풍과 우주선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만약 우주선(cosmic ray)이 지구표면에 직접 도달한다면 화성과 같이 어떤 생물도 살아남 수가 없다. 화성 내부는 고체로 되어 있어 자기장이 없다. 자북(Magnetic North)은 북극 지역을 중심으로 위치를 수시로 바꾸고 있다(지금은 캐나다 북쪽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자북과 자남(Magnetic South)이 역전되는 최근의 자기장 역전현상은 41,000년 전에 일어났으며, 빙하기 초기에 남극과 북극에 급속한 얼음이 쌓이면서, 지구 맨틀과 내핵의 운동량과 회전 속도에 변화가 생겼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기장의 역전은 지구에서 산소탈출과 생물 대멸종으로 이어진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바퀴나 기계들은 조금만 무게균형이 깨져도 회전축이 흔들리는데, 빙하기 초기에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쌓이거나, 요즘 중국 산샤댐에서와 같이 너무 많은 물이 한곳에 치우쳐 저장되면 지구의 자전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지진, 화산, 소행성 충돌, 자기역전과 같은 자연재해는 몇백년 몇천년만에 한번씩 오지만, 개인들이 겪는 병마, 파산, 가난, 사고, 홍수, 가뭄 같은 생활 주변의 일들은 보다 가깝게 영향을 미친다. 그중 경제공황과 같은 경제적 문제들과 전쟁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공산국가들까지도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공산주의가 망하면 자본주의는 더 잘 될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은 깨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빈부격차가 커지면 내부갈등이 증폭되고, 그 나라들은 망했다. 자본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자본주의는 더욱 번창하겠지만, 금융업 등의 이상 발달로 돈놀이와 투기가 자본의 본업이 되어 제로섬 게임에 빠져들면 자본주의는 쇠락하게 된다.

재난을 예측하는 가장 보편적 방법은 역사를 배우거나 통계를 분석해 미래를 유추하는 것이겠지만, 어제의 날씨를 보고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방어하는 각종 기술에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Glacier National Park, nature's comfort

■ 홍종만 (공대64)

“대륙에서 가장 근심을 없애주는 경치”라는 John Muir의 찬사를 실감하고 돌아온 글레이셔 국립공원 여행기를 전합니다. 8월 초, 몬태나 주에 위치한 이 국립공원은 빙하, 호수, 폭포, 웅장한 바위산 등 다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입니다.



하가 녹아내리는 웅장한 소리가 마치 자연의 합창 같았습니다. 빙하 밑으로 펼쳐진 에메랄드빛 호수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St Mary 호수 북쪽에 위치한 Virginia Falls 역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Grand Teton Headwaters 캠프장을 출발하여 9시간 만에 도착한 West Glacier Apgar 캠프장을 시작으로, 50마일의 Going-to-the-Sun Road를 따라 Glacier East St Mary 캠프장까지 이동하며 5 일간의 하이킹을 즐겼습니다. Logan Pass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트레일은 숨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Hidden Lake 지역은 야생동물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걸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캠핑 마지막 날에는 Visitor Center에서 Blackfoot 부족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글레이셔 국립공원 여행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Highline Trail에서는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듯한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890년대 150여 개에 달했던 빙하가 현재는 25개 남짓으로 줄어들었고, 기후 변화로 인해 머지않아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늙어버린 거인을 보는 듯한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빙하 중 하나인 Grinnell Glacier를 방문했을 때는, 빙

회원 명단 (111명 / 2024-10-25)

강교숙	김상만	배상규	윤상영	이흥빈	최학주 한민우 한영오 한태진/ 한용희 허용웅 허유선 홍정표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성기로	윤재옥	임도혁	
강영선	김영덕	손갑수	윤종숙	임호순	
계동휘	김영만	손경택	윤현남	정도현	
고애자	김우영	손대홍/ 남종현	이강홍	정수일	
곽상준	김익성	손옥화	이민제	조달훈/ 조승자	
곽선섭	김정필	송근숙	이상무	정해민	
곽승용	김종율	송웅길/ 송현자	이상원	조상근	
권문웅	김창수	송학린	이승준	조상선	
권정덕/ 홍선경	김충정	송혜순	이준	주재양	
권영대	김치갑	신진식	이대연	진봉일	
권태전	김태일	신응남	이대영	천병수/ 천종화	
금영천	김현중	오순문	이영범	최구진	
김광수	노승만	오용호	이용대	최병우	
김광현	노승면	오인석	이위곤	최순재	
김동건	민준기	우규환	이종대	최준희	
김문경	박기환	유무영	이종석	최진영	
김문언	박상원	윤선구	이행순	최한용	
김병순	박희병			한민우	

2024년 연회비 납부 명단 89명 / \$8900 / 2024-10-25

강에드	김문언	노승만	신두식	이승준	조달훈	허용웅 허유선 홍지복 홍선경 홍종만 홍예경 홍정표
강영선	김병순	민준기	신진식	이영범	조승자	
계동휘	김상만	박기환	오순문	이용대	조상근	
고애자	김영덕	박상원	오용호	이전구	진봉일	
곽선섭	김영만	박준구	이위곤	이종석	천병수	
권문웅	김우영	박희병	우규환	이종대	천종화	
권영대	김익성	배상규	유상영	이준	최병우	
권정덕	김정필	성기로	윤상영	이행순	최준희	
권태전	김종율	손경택	윤선구	이흥빈	최학주	
금영천	김태일	손갑수	윤종숙	임도혁	최한용	
김광수	김한중	손대홍	윤재옥	임호순	한민우	
김광현	김흥빈	송근숙	이강홍	주상선	한영오	
김동건	김현중	송학린	이대영	정수일	한태진	
김문경	남종현	신응남	이상원	정해민	한용희	

2024년 후원금 기부 명단 (28명 / \$12,400 / 2024-10-25)

강에드 200	김한중 300	이강홍 200	정수일 300
계동휘 300	노승만 100	이위곤 100	정해민 1000
권정덕 300	성기로 500	이전구 1000	최상립 2000
금영천 300	손경택 1500	이종대 200	최준희 400
김광현 200	신두식 200	이준 100	최한용 200
김문경 200	신진식 300	이행순 200	한태진 500
김종율 200	오용호 300	임호순 300	홍종만 1000

2024년 입회비 납부 명단

한민우 200	이위곤 200
노승만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이준행 1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4-10-25)

1월	24일 (수)	Zoom 경제 세미나 (14명 참석)
2월	22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3월	21일 (목)	Hiking
	23일(토)	신년교례회 - Double Tree Hotel, NJ
4월	25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Golf Club (36명참가)
5월	23일 (목)	Hiking (6명 참가)
6월	6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45명참가)
	27일(목)	Hiking
7월	11일(목)	Golf Outing Wallkill Golf (29명참가)
8월	15일 (목)	Golf Outing (33명참가)
	22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Alpine Pavillion (150명 참가)
9월	12일(목)	Golf Outing-Hudson Hill Golf Club(27명 참가)
	26일(목)	Hiking
10월	12일(토)	동창회 추계골프대회-Split Rock
	17일(목)	Minnewaska Lake 단풍관광 & 하이킹
	31일(목)	Golf Outing - Sunset Valley Golf Club
11월	14일(목)	Hiking
12월	7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8일-14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2일(토)	2025년 신년교례회-Hilton Hotel Meadowlands



11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계동휘 (치대67)
- 김동건 (사대67)
- 민준기 (공대59)
- 박희병 (치대63)
- 송근숙 (간호66)
- 윤종숙 (약대66)
- 이준 (간호58)
- 천종화 (가족)
- 최학주 (공대60)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